

# 전남 이직률 '전국 최고'... 지난해 4만3100명

### 건설업 종사자 비중 높은 탓... '비자발적' 이직도 3만명 넘어

지난해 전남지역에서는 4만3100명이 직장을 떠나며 2년 연속 전국 이직률이 가장 높았다. 고용 당국은 이직률이 높은 전남지역 건설업 종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23일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이직자 수는 광주 2만9034명·전남 4만3103명 등 7만213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서 이직자는 광주는 3.1%(860명) 증가했고, 전남은 10.7%(-5153명) 줄었다. 전남은 조사가 시행된 후 지난 2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월 평균 이직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전남 이직률은 7.7%로, 전국 평균(5.4%)을 웃돌았다. 전남에 이어서는 대전(7.2%), 세종·전북(각 6.7%), 강원(6.5%), 충북(6.4%), 충남(6.3%), 광주(6.2%), 경북(6.1%), 인천(5.8%), 대구(5.6%)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을 밑도는 지역은 울산(4.1%), 부산(4.2%), 경남(4.5%), 서울(4.8%), 제주(4.9%), 경기(5.1%) 등 6곳이었다. 전남은 지난 2019년에도 이직률 8.8%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4.7%)의 2배 수준을 나타냈다. 전남은 지난해 이직률 뿐만 아니라 '비자발적' 이직자 비중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비자발적 이직은 고용 계약이 끝나거나 구조조정이나 회사 경영상 휴직 등으로 직장을 떠난 사례를 말한다. 지난해 전남 이직자 4만3103명 가운데 72.5%에 달하는 3만1251명이 '비자발적 이직'을 해야 했다. 이 비중은 전국 평균 54.9%를 크게 웃돌았다. 광주 비자발적 이직자 비중은 64.2%로, 전남과 전북(66.7%), 충남(65.8%), 충북(64.7%)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다. 고용부 측은 이직률이 높은 지역은 사업체 종사자 가운데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공통

점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전남 전체 사업체 종사자 60만7597명 가운데 건설업에 일하는 사람은 11.1%에 달하는 6만7361명에 달했다. 이는 강원(11.5%)에 이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았다. 광주 건설업 종사자 비중은 9.5%로, 역시 전국 평균(7.4%)을 넘겼다. 지난해 건설업 이직자 수는 광주 1만766명·전남 1만9367명 등 3만133명에 달했다. 모든 산업 가운데 두 지역 모두 건설업 이직률(광주 22.6%·전남

30.3%)이 가장 높았다. 건설업에 이어서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숙박 및 음식점업 이직률이 광주 10.3%·전남 13.0%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이 업종에 일하는 7919명(광주 3345명·전남4574명)이 직장을 옮겼다. 한편 취업정보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125명을 대상으로 이직 여부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66.7%가 "지난해 이직을 미뤘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혹시 발생할 이직 공백기가 부담스러워서'(51.1%·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원하는 기업의 채용 공고가 안 나와서'(44.5%), '채용 취소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커서'(25.2%), '재직중인 직장의 업무가 늘어서'(18.9%), '이직할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질 수 있어서'(15.3%) 등도 이유로 들었다. 기업 형태별로는 중소기업(68.4%), 중견기업(63.9%), 대기업(60.9%) 재직자 순으로 이직을 미룬 비율이 높았다. 지난해 이직을 미룬 직장인들 중 90.8%는 올해 이직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직을 시도할 시점은 구체적으로 '1분기'(37.3%), '2분기'(26.9%), '3분기'(19.5%), '4분기'(16.3%) 등의 순이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10기 대학생 홍보대사 해단식.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광주시 동구 대인동 본점 KJ상생마루에서 광주은행 10기 대학생 홍보대사 30명과 1달 동안 활동을 마치고 해단식을 개최했다. 광주은행은 지금까지 총 321명의 대학생 홍보대사를 배출했으며, 다음 달 11기를 모집할 예정이다. <광주은행 제공>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070.09 (-9.66)
↓ 코스닥	936.60 (-17.69)
금리(국고채 3년)	1.020 (-)
↑ 환율(USD)	1110.60 (+0.20)

### 소상공인·중기 수도로 감면 수자원공사, 131개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한 달 간 쓴 담용수 및 광역상수도 요금의 감면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우선 담 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를 요금감면 대상으로 삼았다. 수자원공사는 현재 순천시에 담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광주시와 구례를 제외한 전남 21개 시·군에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하고 있다.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관할 중소기업 등에 수도 요금을 감면해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실질적인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 물량과 연계되며 담 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 비율을 반영해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한다. 구체적인 감면액은 '지자체 상수도 감면물량×(담·광역) 사용비율×사용요금의50%'로 산정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담 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약 1100여 곳에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올해 2월 사용량이 1000t(㎥) 미만인 중소기업 등으로,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명품 추가 할인

#### 롯데아울렛 광주·전남 3곳

광주·전남 롯데아울렛 3곳이 이달까지 해외 명품을 최대 20% 추가 할인 판매하는 '롯데탑 스테이'를 진행한다. 행사를 여는 접점은 롯데아울렛 광주수원점·월드컵점·남약점이다. '롯데탑 스테이'는 일년에 두 번 진행되는 행사로, 기존 할인가 대비 20%까지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3일 롯데아울렛 광주수원점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도 해외 명품 매출은 전년 보다 36% 증가했다. 광주수원점은 이달 28일까지 2층 롯데탑스 매장에서 2019년 봄·여름(S/S)부터 2020년 가을·겨울(F/W) 상품을 할인가에 선보인다. 참여 브랜드는 보테가베네타, 구찌, 페라가모 등 30여 개이다. 행사 기간 동안 60만원 이상 구매하면 롯데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일부 상품은 조기 품절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현대차 전용 전기차 첫 모델 공개...내일 국내 사전 계약

현대자동차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모델인 '아이오닉 5' (IONIQ 5)가 공개됐다. 현대차는 23일 온라인을 통해 '아이오닉 5 세계 최초 공개' 행사를 진행하고 25일부터 국내 사전 계약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5에 세계 최고 수준의 현대차 그룹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를 최초로 적용하고 고객들이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차량의 인테리어 부품과 하드웨어 기기, 상품 콘텐츠 등을 구성할 수 있는 고객 경험 전략 '스타일 셋 프리'(Style Set Free)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이오닉 5는 아이오닉 5를 72.6kWh 배터리가 장착된 롱레인지와 58.0kWh 배터리가 탑재된 스탠다드 두 가지 모델이다.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가능거리는 롱레인지 후륜 구동 모델 기준 410~430km로, 350kW급 초급속 충전 시 18분 이내 배터리 용량의 80%를 충전할 수 있고, 5분 충전으로 최대 100km 주행이 가능하다. 후륜에 기본 탑재되는 모터는 최대 출력 160kW, 최대 토크 350Nm이며 트림에 따라 전륜 모터를 추가해 사륜 구동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롱레인지 사륜 구동 모델의 경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h까지 걸리는 시간은 5.2초다. 이밖에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등 다양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적용했고, 편의·공조 기술과 최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안정성과 편의성을 확보했다고 현대차는 전했다. 아이오닉 5의 사전 계약은 롱레인지 모델 2개 트림으로 진행하며, 가격은 익스클루시브가 5000만 원대 초반, 프레스티지가 5000만 원대 중반이다. 전기차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혜택(최대 300만원)과 구매보조금 등을 반영하면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 트림은 3000만 원대 후반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스탠다드 모델 계약 일정과 전체 모델의 확정 가격, 세제 혜택 후 가격은 추후 공개할 방침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